

## 지방선거 후폭풍... 정계개편 '격랑'



민주당 5·18 묘지 찾아 당선 인사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당, 130석으로 몸집 불리고 안정적 개혁 동력 확보 나서  
한국당 흥준표·바른미래 유승민 대표 사퇴...존립 기반 흔들  
평화당 겨우 명맥 유지...민주당 '연정 카드'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등에 업고 중앙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여권은 안정적인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연정 방안까지 모색하는 등 새로운 정치 지형에 맞춘 국회 지배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와 함께 12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후보를 낸 11곳을 모조리 싹쓸이, 의석수를 130석으로 불리며 원내 1당 자리를 굳혔지만 여전히 국회의 재적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

인 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확보가 절대적 과제인 만큼, 민주당 평화당과 정의당 등 우호적 세력과 안정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안별로 범여권, 나아가 야권과도 협력하는 연대 전술에서부터, 비슷한 성향의 정당과 함께하는 연정에 이르기까지, 여권 각 정파별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평화당 및 정의당과의 연대 및 연정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 너무 앞서 나서는 오해의 여백이 볼 수 있어 당 지도부에서는 '연정 및 연대' 등의 단어보다는 민생과 경제 등을 쟁점으로 당분간 낮은 자세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수 야권은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참패하면서 지도부 사퇴가 이어지는 등 정치적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흥준표 대표가 6

6·13 선택 그 후	
광주시청·전남도청 방향	3
여야 정당별 광주·전남 성적표	4
바른미래·평화 '3당 실험' 기로	5
장휘구 당선인에 교육용 물다	6
화제의 당선인·이색 당선인	7·8
단체장·국회의원·교육감 당선인	11
광주·전남 광역의원 당선인	12
광주·전남 기초의원 당선인	13
전북지사·전북교육감 당선인	14

·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박주선 공동대표 등 지도부 사퇴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에 그친 안철수 전 대표도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계에서 퇴장할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의 재편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리적 보수 등 그동안의 보수 가치의 전환은 물론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이 새로운 가치를 근간으로 제3지대에서 '해체모여'가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평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정' 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재편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일부 호남 의원들이 가세한다면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활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 가까워지면 정치 상황이 따라 '통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느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호남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은 물론 연정 및 통합에 대한 당 내부의 거부감 등도 만만치 않아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당분간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추후 정치 상황에 따라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별다른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에 대한 호남 민심의 따가운 눈초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전남 촛불민심 민주당 지지로 이어졌다

민주당, 호남명주 자리 되찾아  
후보들 단일한 자세 질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던 광주·전남지역 '촛불 혁명 민심'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를 싹쓸이 하면서 사실상 호남 맹주의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당은 중앙 권력에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호남의 지방 권력도 장악했다. 옛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에 밀려 광주·전남지역에서 단 한 석에 불과했던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2석을 추가로 늘리며,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의 경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에서 완승한 대신, 전남 기초단체장 격전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과 야당에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의 승리는 당선인들의 자질과 노력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의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남재 시사평론가는 14일 이와 관련 "남북 평화 분위기로 대표되는 '북풍'과 현 정권에 대

한 기대가 담긴 '문풍' 덕분에 민주당의 여유있는 호남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승리에 도취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열린 정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보다는 '민주당 공천장'에만 집중했던 일부 후보의 단일한 자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의 고공지도를 속에서 '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부 후보들은 당 공천을 받은 뒤 거리유세 횡수를 크게 줄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 공천장을 쥔 일부 후보들은 공식 선거기간 동안 오전 9시 이전에 거리 유세 일정을 잡지 않거나 오후 늦은 시간에는 별다른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야당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일부 후보는 느슨한 선거운동을 펼친 탓이다. 이에 "그나마 선거기간이라도 찾아와 인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소리가 터져나왔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과 공약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와 고소·고발로 일관해 지방선거 후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노력도 질신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일꾼을 뽑은 선거였던 만큼,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 검토"

남북·북미 대화 지속 전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미국

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것과 맞물려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솔솔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이행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통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욱~

#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다낭, 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쿠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사항 -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 오사카, 나라, 교토 OR USJ 3일(세미더블) 499,000원~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89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7월 28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899,000원~ ◆ 3박4일 1,198,000원~

**여름방학 가족여행 무안 → 돗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총 18항차]**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총 10항차]**

**7월 20, 23, 26, 29 8월 1, 4, 7, 10, 13, 16**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인일 여행보험
- 특석 2회, 리조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레싱) & 코코넛 비누 1SET(통장) • 필리핀 현지 공항세(750페소/인당) 포함
- 체험다이빙 무료강습, 라푸라푸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마젤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막탄성당, 막탄슈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합니다.

**광주 ↔ 제주도**

- ◆ 2박3일(주중) 299,000원~ ◆ 2박3일(주말) 37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쭈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특 가] 다낭 · 후에 · 호이안 4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6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상품: 1인당, 국내상품 5인만인), 관광진흥회(기금), 관광 및 부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일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상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회사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체,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박명,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